



북코스모스 최중욱 대표

도서 요약본 인터넷 사이트 개설한 '북코스모스'

해외 출판사와 저작권 맺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가

지난 7월 10일, 미출간 해외 신서와 동서양 고전의 요약본을 서비스하는 (주)북코스모스(대표이사 최중욱, www.bookcosmos.com)의 인터넷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북코스모스가 원본의 5~10% 분

량으로 제공하는 '가이드북'은 현재 해외 신서 100여종을 비롯, 이미 출간된 한국문학 및 세계문학 작품, 인문교양서 등 총 3백여종.

북코스모스는 지난 7월 11일 플라자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매월 100여종의 가이드북을 추가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중욱 대표이사는 "특히 정보통신·경제·경영 등 해외 동향과 흐름의 파악이 중요한 분야의 경우, 해외출판사와 직접 저작권을 계약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코스모스는 미국의 맥그로힐, 영국의 버터워스 하이네만, 일본의 고서방 등 해외 출판사 20여개사와 이미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북코스모스는 "가이드북의 선정과 감수는 서울대 조동성 교수가 주축

이 된 교수자문단이 맡고, 집필은 국내 교수진과 연구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등 해당분야 전문가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미문화회·민족문학사학회·철학아카데미 같은 연구단체가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유학생을 포함해 400여명의 가이드북 필자를 확보했다.

최대표는 "가이드북 서비스를 통해 독자들은 해외 정보의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출판사는 번역에 드는 초기비용을 절감하고 독자들의 반응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며 그 유용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북코스모스는 국내저작물의 해외수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금고와 제휴해 100여종의 영문판 '가이드북'을 제작, 해외에 소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의 서비스료는 권당 5백원이며, 사이트는 이용자가 초기화면에서 원하는 도서를 검색해 서평과 짧은 내용 요약문 등의 기본자료를 볼 수 있도록 꾸몄다. 가이드북은 즉석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료는 신용카드·전자화폐·상품권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 특히 10회 접속권, 40회 접속권 등으로 판매하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상품권 사용 후 주식 1주를 배당할 예정이다. - 김정은 기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교양 국사 총서> 재간행

신세대 독자 겨냥, 새롭게 편집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교양 국사 총서(총 39권)>를 재간행했다. <교양 국사 총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역사를 정치·경제·법률·언어·문학 등의 분야별로 총망라한 교양서.

총서는 지난 1974년도 정부의 지원으로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이미 발간한 바 있지만, 새천년을 맞아 신세대를 위해 내용과 편집체제를 새롭게 꾸몄다. 사업회측은 "우리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재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간행된 <교양 국사 총서>는 풍부한 사진 자료와 그림 설명을 곁들여 편집해 중학생 이상의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꾸몄으며, 이를 위해 자료수집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세종대왕 시대의 문화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세종문화문고>도 발간할 예정이다. - 김정은 기자